

英語의 超分節音素의 研究

柳 成 烈

英語英文學科

(1980. 6. 3 접수)

〈요 약〉

超分節音素(Suprasegmental Phoneme)는 分節音素(Segmental Phoneme)와 마찬가지로 對立되고 또 變異音(Allophone)은 가지고 있어서 文章의 意味의 區別을 가져오는 音素로 取扱된다. 兩者는 相補的인 立場에 놓여 있어 이들이 서로 合하여야 비로소 言語의 構成이 可能하게 되는 것이다.

超分節音素를 形成하는 強勢(Stress)와 連接(Juncture) 그리고 音度(Pitch)는 各기 獨立的인 機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複雜하게 서로 關聯되어 있다.

이들은 대체로 各기 4個의 等級을 가지고 있는데, 強勢로서는 第一強勢(Primary Stress) : /ˈ/를 비롯해서 Secondary : /ˌ/, Tertiary : /˘/, 그리고 Weak : /˘/ (또는 無記號)가 있으며 連接은 內開連接(Internal Open Juncture) : /-/과 3個의 末尾連接(Terminal Juncture) : /|/, /!/, /#/으로 되어 있다. 또한 音度로서는 超高音度(Extra High Pitch) : /4/와 함께 High : /3/, Mid : /2/, 그리고 Low : /1/가 있다.

“gréénhòuse”와 “grêen hóuse”는 連接을 가정하지 않고도 house의 強勢가 weak에 기 strong으로 바뀔 때 | 意味의 差異를 가져오며, “an aim”과 “a name”은 오직 /-/ juncture에 의하여 各기 /ənˈéym/과 /aˈnéym/으로 그 뜻이 區別되니 이로 보아 stress와 juncture은 音素라는 것이 證明된다.

또한 말소리의 高低를 나타내는 pitch없는 言語가 存在할 수 없으며, 이 pitch level의 基準은 言語的 差異를 決定짓는 基礎가 되고 있다.

強勢는 內開連接과 함께 強勢型(Stress Pattern)을 形成하며 音度は 3個의 末尾連接과 함께 音調型(Intonation Pattern)을 形成한다. 이와같이 超分節音素를 이루고 있는 強勢와 連接 그리고 音度は 各기 獨立的인 音素로서 서로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單語와 句의 構造를 明示하는 強勢型과 節이나 文章의 構造를 說明하는 音調型의 正確한 習得은 完全한 英語의 音聲組織이나 構造를 把握하는 捷徑이 될 것이다.

A Study of English Suprasegmental Phonemes

Ryu, Sung Ryul

Dep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Received June 3, 1980)

〈Abstract〉

Stress, juncture and pitch are the three recognized suprasegmental phonemes. There are allophonic variations of them, just as there are allophones of consonants or vowels. We do not speak without them; English is always heard with them. All are interdependent in English although each has distinctive features separately.

As meaningful units of English, the combined segmental phonemes are spoken with degrees or levels of the suprasegmental phonemes of stress, pitch, and juncture. Linguists use the symbols /ˈ, ˌ, ˘, ˘/ to represent *primary*, *secondary*, *tertiary*, and *weak* stress, respectively. Linguistic analysis recognizes *internal open juncture* with a plus sign, /-/ and three *terminal junctures* with

symbols of a single bar /|/, double bar /||/, and double cross /≠/. Linguists also use /1/ for *low*, /2/ for *mid*, /3/ for *high*, and /4/ for *extra high* in numbering the pitch phonemes.

Such phrases as “gréenhòuse (the plant-house)” and “grêen hóuse (a colored house)” are sufficient to point out the relative stress differences. A contrast of another sort may be discovered through comparing “an aim” with “a name”. We can distinguish these words with a /+ / juncture after /ən/ and /ə/, respectively. Since its presence or absence may result in a minimal contrast between otherwise similar groups of phonemes, it belongs with the other suprasegmental phonemes of English.

We know that there i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pitch as changes in the levels of stress are normally accompanied by changes in pitch levels.

The four pitches and three terminal junctures constitute intonation contour, whereas stress pattern is composed of stress and internal open juncture. The acquirement of these two patterns will therefore be the royal road to the study of English sound system.

I. 序 論

英語音素의 研究에 있어서 母音과 子音의 分節音素(segmental phoneme)와 그 變異音(allophone)을 研究하는 것이 重要한 것은 勿論이거니와 그 외에 英語構造를 形成하는 強勢(stress), 連接(juncture) 그리고 音度(pitch) 等도 意味의 區別을 가져오는 要素로서 이와 同等的하게 重要하다. 이들은 綴字로 나타나지는 않으나 分節音素와 똑같이 對立되고, 또 變異音을 가지고 있어서 音素로 取扱된다.

學者에 따라서는 이들을 超分節音素(suprasegmental phoneme), 韻律的 資質(prosodic feature) 또는 二次的音素(secondary phoneme)라고 부르고 있다.

分節音素는 發語에 獨立의으로 나타나는데 비하여 超分節音素는 特定한 分節音素에 속하지 않고 하나 또는 여러개의 音節 위에 얹혀 나타나는 이른 附隨音素 또는 얹혀 音素라고도 한다.

超分節音素는 分節音素와 相補的인 局面을 지니고 있어서 兩者가 서로 合하여야 비로소 言語를 형성하게 된다.

超分節音素를 形成하는 強勢, 連接 그리고 音度 또는 高低 等은 各自 機能面에서 獨立의이면서도 서로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 가령 “It is ‘very’gòod! ↓”에서 good은 제일 강한 stress와 pitch를 받고 있는 반면, “Hè is a gòod ‘bóy. ↓”에서 good은 제 2의 강한 stress를 받고, pitch도 /3/에서 /2/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文章配列 관

계로 이 要素들의 移動이 있을 때 말의 意味가 바뀌어진다.

“present, impòrt” 等은 같은 pitch로 첫 音節에 強勢를 주고 發音하면 名詞가 되고, 둘째 音節에 強勢를 주고 發音하면 動詞가 된다. 즉 이들은 強勢의 對立에 의해서 名詞語와 動詞語의 差異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stress의 移動만으로 prominence의 差를 찾을 수 없으며, stress 이외에 pitch의 高低가 가하여져서 비로소 prominence의 優劣이 명료하게 된다.

“Whitehouse”와 “white hóuse”는 音素上으로 /hwáythàws/와 /hwáyt háws/가 되는데, 여기서 juncture를 가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stress의 交錯 즉, hóuse가 weak에서 strong으로 바뀌어오르며 意味의 交錯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that stuff”와 “that’s tòugh”에서 볼 때, 전자의 /t/는 語末音이 되고 후자의 /t/는 語頭音이 된다. 그러나 이 두개의 /t/는 對立되는 다른 音素로 생각되지 않고 다만 juncture의 有無가 對立되어 이 두개의 句의 意味의 差를 가져오게 함을 알 수 있다.

強勢는 內開連接(internal open juncture)과 함께 強勢型(stress pattern)을 形成하며, 音度는 3개의 末尾連接(terminal juncture)과 함께 音調型(intonation pattern)을 形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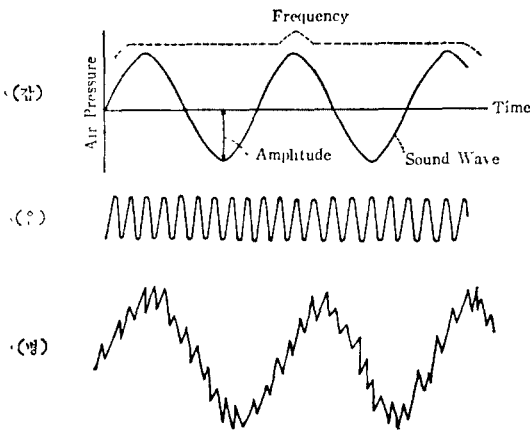
본 研究는 音素的인 면에서 stress와 juncture 그리고 pitch를 個別的으로 取扱하면서 이들이 서로 密接하게 얹혀 있는 強勢型과 音調型에 代하여 考察해 보기로 한다.

II. 强 勢(St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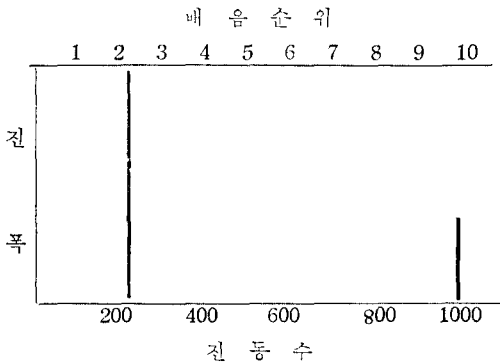
强勢란 사람이 한 音節을 周圍에 다른 音節보다 더 힘을 넣어서 發音할 때에 强度(intensity)를 말한다. 音聲學的으로 설명하면, 어떤 소리가 傳達될 때 그 소리는 空氣中에서 어떤 音波(sound wave)를 形成하여 나간다. 이 音波의 振幅(amplitude)의 크기에 따라 loudness(=stress)가 決定되고 그 音波의 一定期間의 振動數(frequency)에 따라 그 소리의 高低(pitch)가 決定된다.

아래의 第一圖에 있어서 (갑)의 音波와(을)의 音波가 合쳐서 (병)의 音波型으로 혼합된 것을 보여 주고 있는데 그것은 음향스펙터(acoustic spectrum)로 분석하면 第二圖가 된다. (1)

제 1 도



제 2 도



第一圖에서 (갑)은 (을)보다 音波의 振幅이 크므로 强한 소리가 나는 반면에, 振動數가 적으니 낮은 소리가 난다.

그런데 英語構造를 分析해 본다면 强勢를 나타내는 몇개의 要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勿論이 强勢의 問題는 綴字에도 나타나지 않으며 無意識中에 배우는 것이므로 이것을 각각 몇개의 degree로 區分하는데 相當한 無理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의 言語學者들은 單語, 語句 또는 文章에 있어서의 母音들이 stress, 즉 loudness에 의하여 區別된다는 것에 意見を 같이하고 있다.

D. Jones는 stress를 “articulatory gesture”로 認定하면서, 文章에 있어서 差異를 나타내는 2個의 stress와 꼭 必要한 경우에 3個를 認定하고 있다.

It is generally sufficient to distinguish two degrees only, *stressed (or strong) and unstressed (or weak)*. Stressed syllables are marked in this book by placing '1 immediately before them, thus father.....[fɑ:ðə], arrive [ə'raiv].....when for any reason it is found needful to distinguish three degrees of stress, the sign₁ may be used to denote the intermediate or secondary stress. Thus in examination.....[ɪgɪzæmɪ'neɪʃn]. (2)

L. Bloomfield는 intensity와 loudness는 音波의 amplitude에 依한 것으로 생각하여 stress를 amplitude라 하고 pitch를 frequency라 하였으며 3個의 stress를 認定하고 있다.

In English we have three secondary phonemes which consist of increased stress, in contrast with what we may call unstressed passages of phonemes. Our *highest stress* /' marks emphatic forms, usually in contrast or contradiction; our *high stress* or *ordinary stress* [1] appears normally on one syllable of each word; our *low stress* or *secondary stress* [i] appears on one or more syllables of compound words and long words. In phrases, the high stress of certain words, is replaced by a low stress or entirely omitted. Examples: This is *my* birthday present [tʰɪs ɪz 'maj ɪbɜ:ðeɪ'preznt]. (3)

H. A. Gleason도 3個의 stress를 說定하고 있으나

(1) Zong In Sop, *Korean Phonetics* (Seoul: Whimoon Publishing Co., 1973), p.155.
 (2) Daniel Jones, *An Outline of English Phonetics*, 9th ed. (Cambridge: W. Heffer & Sons Ltd., 1960), p.247.
 (3) Leonard Bloomfield, *Language*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50), p.111.

다음과 같이 그 用語를 달리하고 있다.

This prove that stress is phonemic in English; thus two additional phonemes have been established. We will call /' / *primary stress*, and /˘ / we will call *weak stress*... The next type of data that should be examined is words of more than two syllables. These will easily enable us to discover a third degree of stress... We will mark it /˘ / and call it *tertiary stress*. It may be heard in such word as dictionary/díkʃənə-rɪj/.....⁽⁴⁾

한편 Bloch-Trager는 stress를 voice의 pitch에 의하여 좌우되는 “force of utterance”라 定義하던 시

English stress can be completely described in terms of four contrasting grades. These may be numbered from 1 (loudest) to 4 (weakest), or called by descriptive names such as *loud, reduced loud, medial, and weak*: it is useful to group the first three together as *strong*. In a phonemic transcription, the strong stresses are best indicated by accent marks over the vowel letters as /á, â, à/, the weak stress by the absence of a mark, as /a/.⁽⁵⁾

의같이 4개의 強勢音素(stress phoneme)를 認定하고 있다.

Trager-Smith 역시 “pérmit:pěrmít”에서 /' /와 /˘ /의 對立을, “réfùgèe:éfflǵy”에서 /' /와 /˘ /의 對立을 各各 認定하였고, 또 “White Hòuse: white hóuse”의 對立에서 /' /를 認定하여 結局 이들은 stress의 level을 /' , ^ , ˘ , ˘ /로 각각 “primary(or greatest), secondary(or strong), tertiary(or medium), and weak prominence”의 4개로 나누고 있다.⁽⁶⁾

이에 대해 K. L. Pike는 “pérmit:pěrmít” 등과 같이 同一한 分節音素로 構成되고 同一한 文法構造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만 強勢의 差異로서만 뜻의 區

別이 되는 對立語를 찾아서 強勢音素를 說定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따라서 強勢音素와 無強勢音素 2個만을 認定하고 있다.⁽⁷⁾

대체로 이러한 言語學者들의 主張을 分析해 보면 stress는 3個 너지 4個의 level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을 記號로 나타내어 이름을 붙인다면, 第一 강한 強度는 /' /로 나타내고 第一強勢(primary stress)라 하고, 둘째로 강한 것을 第二強勢(secondary stress)라 하고 /˘ /로 나타낸다. 第三強勢(tertiary stress)는 /˘ /로 나타내고 가장, 약한 것(weak stress)은 /˘ /로 나타내든지 때로는 아무런 表示도 하지 않는다. 여기서 指摘해 두고 싶은 것은 이들 4階의 強勢에 어떤 絶對的인 音聲的 基準이 있는 것이 아니고 相對的인 것을 말한다는 點이다.

그런데 英語構造에 있어서 分節音素와 그 配列은 같으나 強度(intensity)가 달라짐에 따라 생기는 意味의 差異를 살펴보자. “light house keeper”를 例로 들며, 위의 強勢의 記號로서 文章에 “light hóusekèepě”와 같이 表示해 보면 “a woman who keeps house and is not heavy(體重이 가벼운 家政婦)”라는 말이 되며, “lighthouse kèepě”로 表示하면 “someone who tends to a lighthouse(燈臺지기)”란 말이 된다. 勿論 이경우에 “light house +keeper”와 “light+house keeper” 같이 juncture도 또한 두 發話의 區分機能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앞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어떤 낱말은 第一強勢의 位置가 變함으로 品詞가 달라진다. 즉 “impört와 Impórt, tránspórt와 tránsþórt, íncreáse와 íncreáse, tránsfér와 tránsfér” 등은 minimal pair로서 前者는 名詞이고 後者는 動詞가 되는 것이다.

또한 “Thàt white hóuse is the White Hòuse”의 文章 中에서 第二強勢를 받는 앞의 white와 第一強勢를 받는 뒤의 White는 對立的이다. 前者는 뒤에 따르는 말을 꾸미고 있으니, “white hóuse”는 “흰집”이라는 뜻이고 後者는 名詞複合語(noun compound)가 되어 “White Hòuse”는 “美國大統領官邸”를 말하는 것이다.

(4) H. A. Gleason, *An Introduction to Descriptive Linguistics*(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Inc., 1961), pp. 41-42.

(5) Bernard Bloch & George L. Trager, *Outline of Linguistic Analysis*(Baltimore: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1942), pp. 47-48.

(6) George L. Trager and Henry L. Smith, Jr., *An Outline of English Structure, Studies in Linguistics, Occasional Papers, No. 3* (Okla: Norman Battenberg Press, 1951), pp. 35-39.

(7) Kenneth L. Pike, *The Intonation of American English*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53), pp. 82-84.

第二強勢와 第三強勢의 對立으로서는 “A Nêw Yórker is not a nêw Yórker”의 文章中 “new”의 強勢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밖에도 詞動의 -ing가 붙는 말이 올 경우에 強勢의 變化로서 意味의 差異를 가져온다. 그 例로서 “a dancing girl”의 경우 “a dâncing gírl”로 發音하면 “춤을 추고 있는 少女”가 되고 “a dâncing gírl”로 發音하면 “職業的인 댄서”를 意味하게 된다. 이와같이 強勢는 英語構造에 있어서 대단히 重要한 뜻을 갖고 있다.

英語에 있어서 第一強勢는 “gó, cóme, sí, stánd” 등과 같이 單音節의 單말이 單獨으로 發音될 때에는 언제나 들을 수 있다. 두 音節의 單말을 發音하면 “góing, cóming”의 경우 첫 音節에 第一強勢가 온다.

네가지 stress 중에 第二強勢는 普通 第一強勢를 받는 말의 앞에 오며 單말에 나타나지 않고 句나 節에 비로서 音調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例를 들면 “a góod mán, vèry bláck, prètty pínk, bláck bóard” 등이다. 그러나 第一強勢 뒤에 第二強勢가 오는 配列은 “líght-hòuse kèepèr, élevàtòr-òperàtòr”와 같이 말과 말을 連結시켜 하나의 單一群을 이룬다.

第一強勢 다음에 第三強勢가 올 때에는 單一群이나 또는 成句를 나타낸다. 그 例로는 “hóuse-kèeper, líght-hòuse, máke-up, to listen tò” 등이 있다.

大體로 英語의 4가지 強勢로 發音할 때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第一 강한 stress와 secondary 또는 tertiary stress를 받는 word class에는 名詞, 形容詞, 動詞, 叙述副詞 等 內容語(content word, main word)가 있고, weak stress를 받는 것으로 助動詞, 動詞, 代名詞, 前置詞, 接續詞 또는 일정한 副詞 等 機能語(function word, auxiliary word)가 있다. 內容語에 屬하는 單語는 큰 變化없는 일정한 音素形態를 가지며, 多少의 變異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機能語가 stress를 받지 않을 때 현저한 分節音素에 變化를 가지므로 여러개의 變異음을 가지게 된다.

Ⅲ. 強勢型(Stress Patterns)

強勢는 內開連接(internal open juncture)⁽⁸⁾과 함께 強勢型(stress pattern)을 形成한다. 強勢型은 音調(intonation)나 音律(rhythm)과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正確한 強勢型的 習得은 역시 正確한 音調, 音律의 習得에 基礎가 된다. 어 린이들은 그들의 母國語를 배울 때 超分節音素인 強勢型, 音調를 더 먼저 習得한다는 것이 알려졌으며, 따라서 英語를 배울 때에도 이들을 먼저 習得하는 것이 보다 合理的인 方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아래에 前章에서 말及한 것을 土壤로 英語의 句의 構造를 나타내는 여러가지 基本強勢型和 그 例를 들어 보기로 한다.⁽⁹⁾

① 形容詞 다음에 名詞가 따를 경우의 基本強勢型은 /^h/이다.

bláck+bóard, óld mán, hòt áir, táll bóys 等

그러나 그 두 單말이 完全히 結合하여 獨立된 뜻을 가질 때 /^h/로 된다. “hígh schòol”은 “高等學校”라는 거의 複合名詞的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bláck tèa(홍차), Réd Cròss(赤十字), Cóld Wàr(冷戰) 等

다음은 같은 語群이라도 「形容詞+名詞」일 때와 複合名詞로 쓰였을 때의 強勢型和 意味의 差異를 比較한 것이다.

a bláck bóard(검은板)
a bláckbòard(철판)
a gréen hóuse(초록색집)
a gréenhòure(溫室)
a dârk róom(어두운房)
a dârkroom(暗室)
a hòt béd(더운침상)
a hótbed(溫床)
a bríef cáse(간단한 事件)
a bríefcase(書類가방)

다음은 같은 單말들이면서 「形容詞+名詞」로 쓰였을 때와 「名詞+名詞」의 複合名詞로 쓰였을 때의 差異이다.

(8) 內開連接은 셋은 末尾連接으로 音節과 한계 音調型을 形成하고 內開連接은 強勢와 한계 強勢型을 形成한다. 內開連接에 對해서는 뒤에 連接章에서 論하기로 한다.

(9) Yarg Dorg Whee, *English Phonetics*(Seoul: Pan-Korea Book Co., 1967), pp.238—257 참조

- a light hóuse(라이트집)
- a lighthóuse(燈臺)
- a fine clérk(훌륭한 書記)
- a fine clèrk(罪金徵收員)
- an Ênglish májor(英軍少領)
- Ênglish mâjor(英語專攻)
- an Ênglish téacher(英國人先生)
- an English têacher(英語先生)

a críminál láwyer(罪인辯護士)
 a críminál lâwyer(刑事問題의 辯護士)
 以上の 對照에서 같은 語群에 對한 다음과 같은
 시로 다른 強勢型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a whíte hóuse: the Whíte Hóuse:
(흰 집) (백악관)
- the Whíte hóuse
(White氏 집)
- a gréen hóuse: a gréenhóuse:
(녹색집) (品室)
- the Gréen hóuse
(Green氏 집)

- a lîght hóusekèeper: a lîghthóuse kèeper:
(體重이 가벼운 家政婦) (燈臺지기)
- a lîghthóusekèeper
(가난한 家事를 돌보는 사람)

「現在分詞+名詞」의 경우에도 /^h/의 強勢型이
 온다. 그러나 「動名詞+名詞」로서 複合名詞의 形式으로
 쓰였을 때는 /^h/의 強勢型이 된다.

- a slèeping báby a slèeping càr(寢臺車)
- a dâncing gírl a dâncing schòol(무용學校)
- a dîning lády a dîning càr(食空車)
- a réading bóv a réading ròom(讀書室)
- a swímming físh a swímming pòol(水泳場)

② 두 名詞가 오는 경우의 強勢型도 앞의 名詞가
 뒤의 名詞에 對하여 修飾語의 役割을 할 때는 /^h/의
 이다.

- dèck chàirs, tóy dógs 等

그러나 앞의 名詞가 結合하여 複合名詞같이
 쓰였을 때는 /^h/의 強勢型을 갖는다.

- póst òffice, búsbòt, móvie stàr,
 fóuntain pèn 等

이제 같은 名詞들이면기 前者와 後者의 強勢型과
 意味의 差異를 比較해 보자.

- a tóy càr(간난감車)
- a tóy càr(장난감을 운반하는 車)
- a lády dóctor(女醫師)
- a lády dòctor(婦人科醫師)

- a brîck yárd(벽돌을 깬 庭園)
- a brîck yárd(벽돌공장)

③ 「動詞+副詞」도 一般의인 경우에는 /^h/의
 強勢型이 온다.

gò hóme, còme hére, mòve ón, lîe dówn 等
 그러나 「動詞+副詞」가 慣用的으로 쓰여서 새로
 운 意味를 나타낼 때 그들은 /^h/의 強勢型은 갖
 는다.

- pût óut(내쫓다)
- pùt óut(회하다)
- brîng úp(가지고 올라오다)
- brîng úp(養育하다)
- cáll úp(윗층을 향해 소리치다)
- cáll úp(電話를 걸다)
- gîve óut(나누어 주다)
- gîve óut(금방이 모자라다)

다음에서 「動詞+副詞」와 「動詞+前置詞」의 強勢
 型을 比較해 보자. 대체로 前置詞는 副詞보다 弱強
 勢를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He fêll òwn on the snòw.
(눈위에 넘어졌다)
- He fêll òwn the slòpe.
(비탈아래로 떨어졌다)
- My watch has rùn òwn nòw.
(태엽이 다 풀렸다)
- My frîend has rùn òwn the stàirs.
(층계를 뛰어내려 갔다)
- Prîces are gòing úp nòw.
(이런 物價는 앙등되고 있다)
- Why òn't you gò úp the stàirs?
(이층으로 올라 가세요)

「動詞+副詞」가 單語로 結合하여 複合名詞로 쓰
 였을 때는 複合名詞의 一般 強勢型을 따다시 /^h/
 도 된다.

- sètùp(編制, 組織) mîxùp(混亂, 뒤죽박죽)
- lòokòut(警戒, 당보기)

다음은 이 경우와 動詞句가 한 文章에 오는 例
 이다.

The sèt+ùp is sèt úp.

다음과 같이 「接尾辭가 붙은 動詞+副詞」로 된 複
 合名詞의 경우는 그 副詞에 第一強勢가 온다.

- lòok ón lòoker-ón(구경꾼)
- pâss bý pàsser-bý(통行人)

④ 「副詞+形容詞」도 /^h/의 強勢型이 온다.

- âll rîght, quáte rîght, tòo múch 等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앞의 文脈으로 보아

서 「副詞+形容詞+名詞」의 構文인지 「形容詞+形容詞+名詞」의 構文인지에 따라 適切한 強勢型을 써야 한다. 後者의 構文에는 언제나 /[^]^[^]/의 強勢型이 온다.

a prètty pînk dréss
(예 분홍 빛나는 옷)

a prètty pînk dréss
(예쁘고 분홍 빛나는 옷)

a vèry whîte mán
(매우 하얀 사람)

the vèry whîte mán
(바로 그 하얀 사람)

mòre beautiful girls
(더 예쁜 소녀들)

mòre beautiful girls
(보다 많은 예쁜 소녀들)

⑤ 「動詞+名詞」도 /[^]^[^]/의 強勢型을 받으나 「名詞+名詞」로서 複合名詞의 으로 쓰였을 때 強勢型의 差異는 다음과 같다.

stòne bírds stòne bírd(돌로 만든 새들)

cróss cúrrénts cróss cúrrénts(逆流)

stíèss pátterns stréss pátterns(強勢型)

이 밖에 動詞의 -ing型이 다른 名詞와 名詞複合語를 構成할 때와 또 그 말이 動詞와 目的의 關係로 올 때에는 그 強勢型이 달라진다. 다음은 그 比較이다.

They are vîsítíng professors. (객인 教授들)

They are vîsítíng professors. (教授들을 訪問하고 있다)

They are pláying càrds. (놀이를 위한 카드들)

They are pláying càrds. (카드놀이를 하고 있다)

They are chéwing gùm. (씹는 gum)

They are chéwing gùm. (gum을 씹고 있다)

They are wáshíng màchínes. (洗濯機들)

They are wáshíng màchínes. (機械들을 씻고 있다)

以上에서 주로 한 音節 이상의 word stress와 phrase에 關하여 說明하여 왔다. 그런데 실제 發話에 있어서 우리는 單語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 單語들이 모인 文章으로 이야기 한다. 이 sentence stress는 반드시 가장 강한 pitch를 동반하여 보통 語句에 나타나는 strong stress 보다도 더 강하다

(10) Daniel Jones, *op. cit.*, p. 274.

할 수 있다. N. Chomsky나 J. E. Pierce와 같은 學者들은 이 sentence stress와 다른 stress와의 區別의 가능성을 示唆하고는 있으나 그들은 또다른 하나의 音素로 說定하지는 않는다. 보통으로 stress를 가진 英語의 音節은 stress를 가지지 않은 音節보다 發話에 더 긴 時間을 필요로 한다. 이런 현상은 英語의 音律(rhythm)과 깊은 關係를 가지기 때문이다. 英語에서는 sentence stress間의 랄음 길이는 兩強勢 사이에 있는 弱音節數의 多少에 상관없이 거의 同一한 時間의 길이를 要하게 되는 경향이 많다. 그 例를 들면, "Lóng, Lóng, agó, there was a kíng in a smáll cóuntry."에서 첫째 줄의 音節數는 둘째 줄의 音節보다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兩行의 3個의 강한 stress때문에 各行은 同一한 時間을 要하게 된다. 다음의 2行의 Tennyson의 詩도 같은 경우가 될 것이다.

"Bréak, bréak, bréak,

On thy cóld gray stónes, O Séa!"

그러나, 이런 stress pattern은 音律的(rhythmical)인 것이지 音素의 對立으로 說定하기에는 더 깊은 研究가 필요한 것 같다.

IV. 連接(Juncture)

連接에 對하여는 특히 強勢와 不可分한 關係에 놓여 있어서 各各 다른 章에서 取扱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叙述上 複雜한을 피하기 위해서 章을 달리 하였다.

連接이란 한 音에서 다음 音으로의 흐름에 있어서 두 音 사이에 생기는 休止(pause)를 말한다. 連接의 根源은 D. Jones의 "pauses"에 由來된 것으로 생각 된다. Jones는

"Pauses are continually made in speaking. They are made chiefly (1) for the purpose of taking breath, (2) for the purpose of making the meaning of words clear."⁽¹⁰⁾

라 하였다. 즉, 連接은 첫째로 呼吸하기 위한 것이고, 言語學的으로 말한다면 單語와 句, 文章의 뜻을 分明하게 하기 위하여 必要한 것이다.

Pike는 英語에 2個의 音韻인 休止를 說定하였는데, 臨時休止(tentative pause)는 "tends to sustain the height of the final pitch of preceding

contour”라 하고, 終末休止(final pause)는 “modifies the preceding contour by lowering in some sense the normal height of the contour”라 하였다. 그에依리면 대체로 終末休止가 臨時休止보다 약간 더 길게 되어 있다.

Trager-Smith는 休止自體의 길이에는 別로 關心을 두지 않고, 다만 休止로 들어가기 直前에 지극까지 持續되어 온 音度(pitch)에 따라서 持續末尾連接(sustained terminal juncture), 上昇末尾連接(rising terminal juncture), 그리고 下降末尾連接(falling terminal juncture)을 說定하고 各各 /|/, /'/, /#/, /# /로 表記하였다. 대체로 Pike의 終말유지는 Trager-Smith의 하강말미연접에, 임시유지는 저속말미연접 또는 상승말미연접에 該當된다.

H. A. Gleason도 Trager-Smith와 비슷하게 sustained, rising, fading의 3가지 終末休止를 說定하고 다만 이를 각각 /→/, /' /, /↓ /로 表記하였다. 이는 視覺的인 效果에 利點이 있다고 볼 수 있다.

“John + is + going + home # ()”과 “John + is + going + home # (?)”의 두 文章을 比較하여 볼 때, 첫째 文章에서는 普通으로 pitch의 上下가 움직임이 있으나, 마지막 音節에 가서는 完全히 떨어져 둘째 文章에서는 文中에는 上下의 pitch가 계속되다가 마지막 音節에서는 급격히 上昇이 계속된다. 急上昇과 急下降 音調는 반드시 마지막 音節에 한하여 일어난다. 叙述과 疑問文을 만드는 이 두 要素中 첫째 것을 “double bar cross juncture”, /# /라 하고, 둘째 것을 “double bar juncture”, /# /라 하고 한다.

다음에 “The sún's râys méet #”과 “The sóns râise méat #”를 表示대로 읽으면 두 文章은 분간할 수 없게 된다. 이때에 juncture /| /를 引入시켜 다음과 같은 文章으로 發音하여 보면 그 意味가 明瞭해진다.

The sún's rays/ méet #

The sóns/ râise méat #

이러한 發話는 stress의 pattern의 變化도 알게 되고, 또 Trager-Smith가 말한 “sustained terminal juncture(single bar juncture라고도 한다)”, /| /를 發見하는데 有力한 증거가 된다. 話者는 定정한 pause 即 소리의 休止없이 /| /를 들을 수 있

다.

이러한 末尾連接의 一般의 特徵은 그 末尾音節의 直前에 있는 音 또는 音節은 普通에보다도 더 길게 發音되게 한다는 점이다.

A. A. Hill은 /|/, /' /, /# /의 3가지로 timing의 重輕점을 들고 있다. timing을 決定하는 根據가 各어각 定確한 것은 아니지만, 實驗적으로 Hill은 時間的 길이로 한다면 /| /은 /' /의 1.5倍이고, /# /은 /' /의 2倍로 생각하여, 各 點부 發見의 方法으로 timing을 導入하고 있다. Hill은 terminal juncture는 時間延長의 現象으로 생각하고, pause와 止音한 關係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¹¹⁾

末尾連接으로 區分되는 各 音節段落 內에는 單 하나의 第一強勢가 올 수 있다. 이 第一強勢의 位置는 그 文章 또는 發話(utterance)의 音律(rhythm)과 音調型(intonation contour)의 基礎가 된다. 末尾連接 以外에 Trager-Smith는 內閉連接(internal open juncture)이라고 하는 매우 적은 言語學的 休止를 英語의 別個 音素로서 認定하였다. 한 음이 다른 音으로 끊기지 않고 順調롭게 올라 갈 경우에는 內閉連接(internal close juncture)이라고 하고, 若干의 休止와 그에 따르는 여러가지 音聲的 變動이 나타날 경우에는 이를 內閉連接이라고 한다. 이것은 또한 “open transition” 또는 “plus juncture”라고도 불리우며 /+ /로 表示된다.

같은 音을 가지고 같은 強勢형을 갖는 말이 /+ / 連接의 有無나 그 位置의 差異도 전혀 다른 말이 될 경우가 있다. 그 例를 들면,

a name [ə'neɪm]: an aim [ən'eɪm]

that sod [t'ðet 'sɒd]: that's odd [t'ðet s'ɒd]

that stuff [t'ðet 'stʌf]: that's tough

[t'ðet s'tʌf]

의 隻들은 子音과 母音은 同一하지만, 뜻은 다 對立되어 있다. 이때 對立의 要素를 音素로 보고 이것을 /+ / juncture라 한다. /+ / 連接에 대해서 J. Sledd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Open transition occurs, then, mostly between words or between two meaningful parts of a single word. At these points the way of getting from one sound to the next is often different from the close transition between sounds at other points. The word

(11) Archibald A. Hill, *Introduction to Linguistic Structures; from Sound to Sentence in English*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1958), p.24.

nitrate, for example, has just the same vowels and consonants and almost the same stresses as *night-rate* and the two items can be spoken with the same intonation pattern; but the ways of getting from /t/ to /r/ in *nitrate* and in *night-rate* are different. After the /t/ of *nitrate*, there is a puff of breath and a whistling sound of friction which we do not make or hear in *night-rate*.

The *nitrate* is cheaper.

The *night-rate* is cheaper.

The way of getting from /t/ to /r/ in *nitrate* is the close transition between these two sounds, which we will indicate by writing the letters with no space and no mark between them. To show the *open* transition in *night-rate*, we will write a plus /+/ where ordinary spelling has the hyphen: *night+rate*.

We can not assume, however, that open transition occurs only where in ordinary spelling we use a hyphen or put a space between letters. Sometimes it occurs where ordinary spelling puts two letters side by side. (12)

위 文類에 제시한 두가지 例文 以外에 “That type of pottery-decoration is called, after its discover, the *Nye trait*.”라는 文章을 생각하면서 이들 文章에 나오는 各 單말을 各各 比較해 보면

- ① nitrate /¹náyt-rèyt¹≠/(硝酸나트륨)
- ② night rate/²náyt+rèyt¹≠/(夜間料金)
- ③ Nye trait/³nay+t-rèyt¹≠/(Nye 式or Nye 家의 特性)이 된다.

①에서는 內閉連接이 오고, ②에서는 /t/와 /r/ 사이에, ③에서는 /ay/와 /t/사이에 各各 內閉連接이 온다. ①의 치 /t/와 ③의 /t/는 帶氣音(aspirated sound)으로 發音되고 ②의 night의 語尾에 오 는 /t/는 非閉離音(unreleased)으로 發音된다. 이와같이 /+ /는 音素 사이에 오는 休止를 나타내며 이로 인해 같은 母音과 子音, 그리고 같은 強勢型으로 發音되는 單말이 전혀 意味가 다른 말이라는 것을 區別할 수 있게 하니 /+ /가 意味分別要素인 것이 證明된다.

또한 “We'll+ówn : Wè+lóan”와 “Ice+crèam : Ì+scrèam” 등도 같은 例들이다. 後者の 경우 “Ice

cream”에서는 /s/가 語尾에 오고 /k/는 帶氣音인 [kʰ]가 되며, “I scream”에서는 /s/가 語頭에 오고 그 다음에 따르는 /k/는 非帶氣音(unaspirated sound)인 [k]로 發音된다. 이와같이 /+ /는 接音素의 흐름을 變는 役割을 하며 音의 變動을 가져오는 것이다.

以上에서 internal(plus) juncture의 音素로서의 機能은 充分히 理解되었다고 본다. 그렇다, 앞서 說明한 3個의 terminal juncture의 音素로서의 對立的 關係에 있다고 斷定하기에는 여러가지 問題가 惹起된다. Trager-Smith의 上尾閉連接과 下尾閉連接을 생각해 볼 때, 가령 “Are 'yóu going ²home?”과 “²Are yòu góing 'hó.me³?”에 기 켜져 文章은 stress가 you에 있고 強調되는 바가 you에 있어서 疑問文이지만 下降調로 發音되어 둘째 文章의 긴장한 疑問文과의 差異를 이룬다. 그러므로 이런 種類의 文章 區別은 어디까지나 emotional한 것이시, distinctive한 音素로서 생각될 수는 없을 것 같다.

또한 文章 끝에 오는 juncture를 인공의 pause로 본다면, 이 pause를 stress와 密接한 關係를 가진 pitch의 한 變異音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問題이다. 이런 점에서 J.E. Pierce는 다음과 같은 文章에 나타난 pitch contour로 juncture를 代身하고 있다.

- ³Yóu want to³ go⁴?
- ²You ²want to³ go⁴?
- ²You ³want ²to ³go⁴?

D. Jones를 위시해서 H. Kurath 등 여러 學者들이 末尾連接의 表示 代身에 pitch level을 使用하고 있음에 비추어 juncture의 各 level은 音素도 認定 하느냐 하는 問題는 더 많은 研究가 必要하다고 본다.

V. 音調(Intonation)

音調(intonation)라 함은 4個의 pitch level과 前章에서 說明한 3個, /I, II, ≠/의 terminal juncture를 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音調의 한 要素로서 末尾連接을 獨立시키는 데에 無理가 있었으나, 實際 叙述上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따로 取扱한 것이다. 本章에서는 주로 音高(pitch)에 對해서

(12) James Sledd, *A Short Introduction to English Grammar*(Chicago: Scott Foreman, 1950), p. 35.

說明해 보기로 한다.

音度はspeech melody, 即 말소리의 高低를 意味한다. 앞에서도 說明한 바와같이, 音波(sound wave)의 振幅(amplitude)에 依하여 그 소리의 크기(loudness), 즉 強勢(stress)가 決定되고 음파의 周波數(frequency)에 依하여 그 소리의 音도가 決定된다. 그런데 이 音度は 話者の 感情과 氣分에 따라 여기까지 變異(variation)가 生길 수 있다. 따라서 pitch의 level을 音響學上의 測定에 依하여 科學的인 分析으로 決定짓는 것이 正確한 研究이기는 하나, 이에 많은 困難한 問題를 가지고 있어 대부분의 研究은 intonation의 現象을 客觀的으로 表示하려고 한 表記法에 依하여 이루어져 왔다. D. Jones는

I found the method of classifying the phenomena of English intonation adopted by Armstrong and Ward in their Handbook to be effective in practical teaching, and I accordingly follow their system in this chapter. They have shown, quite correctly in my opinion, that most sense-groups in English are said with one of two fundamental 'tunes' or with other 'tunes' which are formed by modifying the fundamental tunes according to definite principles. The two fundamental tunes are generally known as 'Tune 1' and 'Tune 2' respectively. (13)

라고 하여 'tunes'이라는 用語로서 intonation을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音響學上으로는 breath-group에 매우 類似한 것이다. Jones는 L.E. Armstrong과 I.C. Ward의 Tune理論을 받아 더 擴大하여 "Tune I"과 "Tune II"가 各各 "unmarked breath-group", "marked breath-group"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2個의 contour가 英語의 音素單位를 이룬다고 말한다.

Armstrong과 Ward가 使用한 Tune I"은 "unmarked breath-group"에 해당하는 것으로 中間 pitch에 이 始作하여 上昇하다가 文章 끝에서 갑자기 떨어진다. "Tune II"는 "marked breath-group"과 比 筭한 것으로 上升 또는 中間 pitch로 始作하여 漸次로 떨어지다가 文章 끝에서 上昇 또는 平行으로 끝을 맺는다. 그들은 文章을 "sense-group"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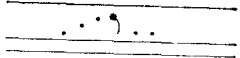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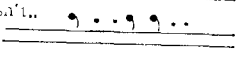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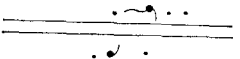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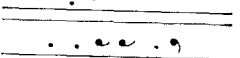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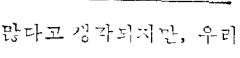
나누어 이것을 "intonation group"이라 하고, 이것은 "Tune I", 또는 "Tune II"의 contour를 가진다고 하였으나 "sense-group"과 "intonation group"의 明確한 定義는 버리지 않고 있다. 이에 Jones는

"Sentences are usually divisible into smaller sequences between which pauses may be made, though they are not essential. The shortest possible of such sequences (i. e. sequences which are not capable of being further subdivided by pauses) are called sense-groups." (14)

라고 "sense group"을 定義하고 이 "sense-group"은 "Tune I"이나 "Tune II" 중에 하나를 賦한다고 하였다. Jones는 pitch level에는 3個(rising, falling, level intonation)를 說定하여 Armstrong-Ward와 일치하고 있다. 한편 Jones는

Intonation may be conveniently shown graphically by placing dots and lines in appropriate places on a staff, each dot or line representing the pitch of a syllable. The dots represent level or nearly level pitches; rising or falling lines represent syllables in which a rising or falling pitch is clearly perceptible. (15)

라고 하여 stressed와 unstressed syllable을 나타내기 위해 "heavy and light dots"를 使用하고 여기에 適當한 line을 附加함으로써 音節의 melodic change를 示여주고 있다. 다음은 이러한 "dot and line system"의 쓰기이다.

He left an hour ago.	
Her dog has fleas. Mine doesn't.	
How good of you.	
Did he break it?	
Did you walk, run, or ride?	

이러한 system의 利點은 많다고 생각되지만, 우리는 이러한 表記가 phonemic하다기 보다는 오리터 phonetic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美國學派 특히 構造主義立場에서 Bloomfield는,

(13) Daniel Jones, *op. cit.*, p. 279.

(14) *Ibid.*, p. 274.

(15) Daniel Jones, *The Pronunciation of English*, 4th ed. (Cambridge: W. Heffer & Sons Ltd., 1956), p. 150.

“intonation contour는 여러 개의 pitch에 依해서 決定되며 이 pitch들은 文章의 單語와 獨立된 意味를 지니고 있는 要素이다.”라고 하여 pitch 音素를 獨立시키는 忖전을 열어 놓았다. 사실상 pitch 없이 會話가 成立되는 言語는 存在할 수가 없다.

R. S. Wells는 “There are four pitch phonemes distinguished by Arabic numerals from 1 (lowest) to 4 (highest).”와 같이 4個의 pitch level을 說定하고, /231/의 contour가 가장 典型的인 contour로서 美國英語에서 일어나며, pitch /3/은 恒常 main stress에 일어난다고 하였다. Wells는 分節音素에 시와 마찬가지로 pitch의 對立關係로서 音素를 決定지으려 하였으나 精確한 minimal contour를 찾지 못하였다.⁽¹⁶⁾ 그가 設定한 4個의 pitch level은 K. L. Pike와 Trager-Smith에 依해서 繼承되었다.

Pike는 “In English then an intonation meaning modifies the lexical meaning of a sentence by adding to it the speaker’s attitude toward the content of the sentence”⁽¹⁷⁾라고 intonation을 定義하고, intonation contour를 4個의 pitch level과 2個의 pause로 記述하였다. Pike는 4個의 pitch level을 숫자로 나타내고 있는데, “number 1 to represent the highest pitch and number 4 to represent the lowest”로 하고 이 4個의 level의 pitch에 對하여 “The four levels are enough to provide for the writing, and distinguishing of all of the contours that have differences of meaning so far discovered.”⁽¹⁸⁾고 하였다. 그의 2個의 pause에 對하여는 連接(juncture)에서 說明한 바 있다.

Pike는 보통 音調(intonation)를 2部分으로 나누었는데, 즉 어떤 意思段落에 있어서 第一強勢가 있는 音節까지 一定한 音도로 계속되는 音調를 前型調(precontour), 그 뒤에 第一強勢의 音節에서 音도가 높아졌다가 끝맺을 때까지의 音調를 主型調(primary contour)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둘을 합하여 總型調(total contour)라고 하였다. 이를 볼때 音調型(pitch pattern)은 強勢型(stress pattern)과 密

接한 關係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例文을 보자.

① $\overset{2}{H}\overset{2}{e} \text{ } \overset{3}{i}s \text{ } \overset{3}{a} \text{ } \overset{3}{g}\overset{3}{o}\overset{3}{o}\overset{3}{d} \text{ } \overset{1}{t}\overset{1}{e}\overset{1}{a}\overset{1}{c}\overset{1}{h}\overset{1}{e}\overset{1}{r}.$

② $\overset{2}{H}\overset{2}{e} \text{ } \overset{2}{i}s \text{ } \overset{2}{a} \text{ } \overset{3}{g}\overset{3}{o}\overset{3}{o}\overset{3}{d} \text{ } \overset{1}{t}\overset{1}{e}\overset{1}{a}\overset{1}{c}\overset{1}{h}\overset{1}{e}\overset{1}{r}.$

(정말로 좋은……)

③ $\overset{2}{H}\overset{2}{e} \text{ } \overset{1}{i}s \text{ } \overset{3}{a} \text{ } \overset{3}{g}\overset{3}{o}\overset{3}{o}\overset{3}{d} \text{ } \overset{1}{t}\overset{1}{e}\overset{1}{a}\overset{1}{c}\overset{1}{h}\overset{1}{e}\overset{1}{r}.$

(내가 분명히 말하건데……)

④ $\overset{3}{H}\overset{3}{e} \text{ } \overset{1}{i}s \text{ } \overset{3}{a} \text{ } \overset{3}{g}\overset{3}{o}\overset{3}{o}\overset{3}{d} \text{ } \overset{1}{t}\overset{1}{e}\overset{1}{a}\overset{1}{c}\overset{1}{h}\overset{1}{e}\overset{1}{r}.$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Pike의 用語를 使用하여 說明하여 보면, 위 例文 ①에서는 He is a good, ②에서는 He is a, ③에서는 He가 各各 前型調가 되고, 나머지는 主型調가 된다. 例文 ④는 前型調는 없고 主型調만으로 音調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이다. 이들 例文은 音度 /2/의 前型調가 온 경우였는데, Pike는 前型調의 音도로 /1, 2, 3, 4/의 모든 音도가 다 올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그도 Wells와 같이 가장 普遍的인 前型調는 音도 /2/로 된 경우라고 하였다.

다음에 Trager-Smith 역시 4個의 phonemic pitch level을 說定하였는데 다만 가장 낮은 pitch를 나타내는 숫자를 /1/로 하여 점차로 올라가 가장 높은 pitch를 /4/로 하였다. Pike의 2個의 pause에 對해 Trager-Smith가 3個의 terminal juncture를 使用한 것은 前節에서 이미 說明한 바 있다. 이들은 1個의 terminal juncture(/+/ juncture)와 한 개의 primary stress와 1個 以上の pitch를 가질 경우 minimal complete sentence라 하고, 이것을 “phonemic clause”라 하였다.⁽¹⁹⁾ 그리고 pitch level과 stress level의 差異라면 前者는 phonemic clause의 notation으로 使用되고, 後者는 prominence를 反映하고 있다.

H. A. Gleason도 또한 Trager-Smith와 같은 pitch level을 說定하고 있다.

The normal pitch of the voice of the speaker is /2/, called *mid*.…… Pitch /2/ is relatively common and serves as a stand-

(16) Rulon S. Wells, *The Pitch Phonemes of English* (Language, Vol. 21, 1945), pp. 30-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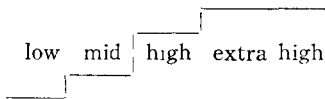
(17) Kenneth L. Pike, *op. cit.*, p. 21.

(18) *Ibid.*, p. 26.

(19) Trager-Smith, *op. cit.*, pp. 58-59.

ard of comparison for the others. Pitch /1/, called *low*, is somewhat lower, perhaps two or three notes below /2/, but the interval will vary from speaker to speaker and from time to time. Pitch /3/, called *high*, is about as much higher than /2/ as /2/ is above /1/. Pitch /4/, called *extra high*, is higher than /3/ by about the same amount, or may even be somewhat higher. /4/ is much less frequent than the other three. (p. 46)

그는 이어서 불행히도 소수의 美國 言語學者들이 pitch level에 있어 “/1/ for extra high, /2/ for high, /3/ for mid, and /4/ for low.”를 各各 使用하고 있는데, 이러한 混亂은 다음과 같은 graphic system을 採하던 可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20)



Gleason은 Wells나 Pike와 마찬가지로 英語의 가장 공통적인 intonation contour는 /231\~/이며 이는 疑問文에도 종종 사용된다고 하였다. 다음에 그의 例文을 들어 본다.

/²āym+gōwɪŋ+hōwm¹\~/

I'm going home.

/²āym+³gōwɪŋ+hōwm¹\~/

I'm going home.

/³āym+gōwɪŋ+hōwm¹\~/

I'm going home.

/²hwèn+³əryə+³gōwɪŋ+hōwm¹\~/

When are you going home?

그는 다음 경우에 pitch/4/가 使用되어 질 수 있는데 이는 아주 드물게 일어난다고 하였다.

/²āym+gōwɪŋ+hōwm¹\~/ I'm going h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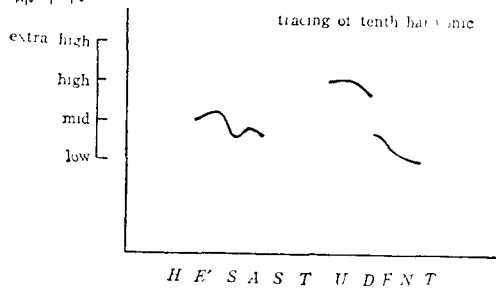
(In case of a person who has started home but is being nagged to move a bit faster.) Robert Lado는 “When pitch is used with phrases and sentences, we call it intonation. When pitch is used to identify and differentiate words, we call it tone. English is not a tone language; it is an intonation language.” (21)

라고 intonation을 定義하고,

English has four pitch phonemes, not four fixed points on a musical scale but four relative levels. . . . In the sentence, “He’s student,” spoken with a normal *mid pitch* at the beginning, a *high pitch* on *stu-* and dropping to a *low pitch* at the end, we hear three of those four pitches in operation. (22)

와 같이 例文을 들어 4個의 pitch 중에 3個를 紹介하고 있다.

이어 R. Lado는 Prof. Gordon Peterson (23)이 위의 例文 “He’s student.”에 代하여 行한 sound spectrogram의 實驗을 紹介하고 있는데 다음은 그것의 一部이다.



以上에서 살펴 보면 學者들은 대체로 4個의 pitch level을 說定하고 있으나 stressed syllable에는 대개 pitch level /3/을, unstressed syllable에는 /2/를 오게 하고, final juncture에만 pitch /1/을 오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事實은 pitch의 degree가 4個가 아니라 높은 것은 /3/, 제일 낮은 것 즉 juncture를 同伴하는 /1/이 있을 뿐이 아닌 가 생각된다. 勿論 感情, 情緒面에서 보면 더 많은

(20) H. A. Gleason, *op. cit.*, p. 47.

(21) Robert Lado, *Linguistics Across Culture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57), p. 36.

(22) *Ibid.*, pp. 36-37.

(23) *Ibid.*, p. 37. “Professor Gordon Peterson kindly provided the sound spectrogram and the tracing of the tenth harmonic to show intonation level. In many spectrograms which we made of a sentence in the various intonation patterns used in this section, it became abundantly clear that the pitch of the voice does not jump from one “level” to another, but glides more or less sharply toward points which are heard by native speakers as minimal differences, much remains to be done in the instrumental study of intonation within a structural frame.”

階段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pitch level의 基準으로서 言語의 差異를 決定짓는 要素를 基礎로 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Pike나 Gleason의 音調型(pitch pattern)에 대해서 說明한 바 있거니와, 若干의 例外는 있으나 대체로 「下降主型調(falling primary contour) + 下降末尾連接(falling terminal juncture)」으로 끝나는 音調를 下降調(the rise-fall intonation: 울러서 낮추는 억양)라 하고 「上昇主型調 + 上昇末尾連接」으로 끝나는 音調를 上昇調(the rising intonation: 울리는 억양)라 하고 둘 이상의 主型調 + 末尾連接 또는 예측을 不語하는 音調를 混合調(the mixed intonation)라 할 수 있다. 이들에 對하여 좀더 說明해 보기로 한다. 下降調는 pitch level, /1/과 下降末尾連接, /#/로 끝나며 基本形은 /231#/)이다. 이 중에서 /2/는 前型調, /31/은 主型調이다. 이 /231#/의 音調型은 英語에 있어서 가장 普遍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pitch pattern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文型에 使用된다.

① 事實을 나타내는 간단한 平叙文 또는 感嘆文

The library closes at nine.

What a beautiful day! (/231#/)

② 命令文

Come here. Open the window. (/231#/)

③ 疑問詞로 始作하는 疑問文

What's wrong?

How are you this morning? (/231#/)

話者에 依해서 한가지 以上の 意思가 강조될 경우에 2個의 falling pitch와 함께 first pause 다음에 sustaining juncture가 온다.

Don't drive so fast, it's dangerous. (/232|231#/)

No, what's wrong with the other time? (/32|231#/)

다음에 上昇調는 보통 "yes"나 "no"로 대답이 이루어지는 疑問文에 使用된다. 上昇調의 基本形은 /23/|

또는 /233||/)이다. 즉 처음에 音度 /2/에서 始作하여 第一強勢가 있는 音節에서 音度 /3/으로 올라가 그대로 계속되다가 끝에 가서 上昇末尾連接, /||/으로 끝맺는다.

Did he finish his work? (/23||/)

You mean you can't come? (/23||/)

Will you read it for me? (/233||/)

그리고 어떠한 平叙文도 pitch pattern만 가지고 疑問文으로 바꿀 수 있다.

It's time for the class to end. (平叙文)(/231#/)

It's time for the class to end? (疑問文)(/23||/)

混合調는 다음 경우에 온다. 즉 둘 이상의 意思段落으로 끊어지 말할 때, 그 意思段落마다 「主型調 + 末尾連接」이 오게 되며, 또한 話者의 心境에 따라서 자기가 강조하는 語彙를 높은 音調로 말할 때 音調에 광범위한 變化가 오게 된다. 대체로 이 경우에 基本形은 /23|231#/ 또는 /232|231#/)이다. 다음은 그 例文이다.

He came, he saw, he conquered. (/23||23|231#/)

Will he come by plain or train? (/23|231#/)

I hear the noise, but I can't locate the source. (/232|231#/)

You like fish. (That's strange. Never expected you to.) (/23||/)

잘 알고 있는 事實을 다만 묻는 形式으로 말할 때의 附加疑問文(tag question)은 下降調를 取한다.

You are hungry, aren't you?

(너 배고프지.) (/231|31#/)

It's very fine today, isn't it?

(오늘 날씨 좋지요.) (/231|31#/)

普通疑問文과 같은 意味의 tag question은 上昇調를 取한다. 이런 경우는 相對方의 對答을 期待하고 묻는 것이다.

You can speak English, can't you?

(영어 할 줄 아시지요?) (/231|23#/)

Ⅶ. 結 論

지금까지 英語의 超分節音素 (suprasegmental phoneme)를 形成하는 強勢(stress)와 連接(juncture) 그리고 音度(pitch)에 對하여 論하였다. 이들은 分節音素(segmental phoneme)와 똑같은 機能으로 文章의 意味解釋을 완성하는 音素이며, 分節音素와는 相互 從屬되어 있지 않으면서 相補的인 立場에 놓여 있어 兩者가 서로 合하여야 비로소 言語의 構成이 可能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超分節音素를 비록 別個의 章에서 論하기는 하였으나, 이들은 各自 獨立的인 機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다. 構造的인 語順과 階層과의 깊은 關係를 가지기 보다는 文章構造 전체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

앞서도 說明한 바와 같이 英語의 超分節音素에 對하여 學者間에 다소의 異見이 있으나 대체로 그들은 4個의 強勢, 4個의 連接 그리고 4個의 音度を 說定하고 있다. 4個의 強勢는 다음과 같다.

第一強勢(primary stress) : /' /

第二強勢(secondary stress) : / ^ /

第三強勢(tertiary stress) : / ˘ /

弱強勢(weak stress) : / ˘ / 또는 無記號

"light house keeper"는 強勢가 달라짐에 따라서 "體重이 가벼운 家政婦(house에 第一強勢)"도 되고 "燈臺지기(light에 第一強勢)"도 되는 것처럼 強勢는 意味의 差異를 가져오며, 또한 英語의 品詞를 規定짓는 役割로도 英語構造에 있어서의 重要性을 지

니고 있다. 強勢는 內開連接(internal open juncture)과 함께 強勢型(stress pattern)을 形成하며 이의 正確한 習得은 音調(intonation)의 習得의 基礎가 되는 것이다.

다음에 4個의 連接은 아래와 같다.

內開連接(internal open juncture) : /+ /

持續末尾連接(sustained terminal juncture) : /| /

上昇末尾連接(rising terminal juncture) : /| /

下降末尾連接(falling terminal juncture) : /# /

"nitrate"와 "night rate"는 分節音素의 表記로는 同一하나 오직 內開連接 有無에 따라서 各各 "硝酸 나트륨"과 "夜間料金"이 된다.

"an aim"과 "a name"도 分節音素로는 /ənéym/으로 同一한 表記이나 /ən'éym/과 /ə+néym/ 처럼 internal open juncture, /+ /에 依하여 그 뜻이 區別된다. 그러나 terminal juncture의 각 level의 音素로서의 機能에 對하여는 더 研究가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4個의 音度は 다음과 같다.

超高音度(extra high pitch) : /4 /

高音度(high pitch) : /3 /

中音度(mid pitch) :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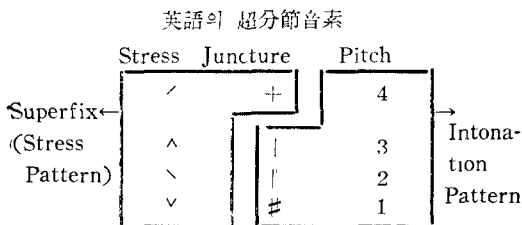
低音度(low pitch) : /1 /

"speech melody" 即 말소리의 高低를 音度라 하는데 이 pitch없이 會話가 成立되는 言語는 存在할 수 없으며, 이들 Pitch level의 基準은 言語的 差異를 法定짓는 基礎가 되고 있다. 위의 4個의 pitch level과 3個의 terminal juncture가 合하여 音調를 形成한다. Pike는 音調를 2部分으로 나누었는데, 즉 第一強勢가 있는 音節을 基準으로해서 그곳까지 一定한 音度로 계속되는 音調를 前型調(precontour), 그리고 第一強勢가 있는 音節에서 音도가 높아졌다가 끝맺을 때까지의 音調를 主型調(primary contour)라 하였다. 이에서 우리는 音調型과 強勢型이 서로 密接한 關係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英語에 있어서 가장 普遍的인 音調型은 /231# /이라 할 수 있다.

以上에서 우리는 英語의 超分節音素에는 4個의 強勢와 1個의 內開連接, 4個의 音도와 3個의 末尾連接이 있어 強勢와 /+ /連接은 上位型(superfix) (24)을 形成하고, 音도와 末尾連接은 音調型(intonation

(24) Yao Shen, *English Phonetic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2), p. 208. 上位型은 여러 強勢型을 말하는 것이며 單語와 句의 構造를 指示하는 複合信號라고 말할 수 있다.

pattern)을 形成함을 보았다. 이것을 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強勢型은 주로 單語와 句의 構造를 明示하는데 쓰이고 音調型은 節이나 文章의 構造를 說明하는데 쓰인다고 할 수 있다.

英語의 音聲組織을 習得하고 그 言語構造인 音素를 研究하는데 있어서는 分節音素인 子音과 母音 그리고 그 變異音을 正確하게 習得함과 同時에, 超分節音素의 強勢와 強勢型, 音度와 音調型을 正確하게 解得하여야 비로소 完全한 英語의 音聲組織이나 言語構造에 對한 研究가 이룩된 수 있을 것이다.

Bibliography

Bloch, Bernard and Trager, George L., *Outline of Linguistic Analysis*, Baltimore: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1942.

Bloomfield, Leonard, *Language*,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50.

Bronstem, Arthur J., *The Pronunciation of American English: An Introduction to Phonetics*,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Inc., 1960.

Gleason, H. A., *An Introduction to Descriptive Linguistics*, 2nd ed.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Inc., 1961.

Hill, Archbald A., *Introduction to Linguistic Structures*,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1958.

Jones, Daniel, *An Outline of English Phonetics*, 9th ed. Cambridge: W. Heffer & Sons Ltd., 1960.

— *The Pronunciation of English*, 4th ed. Cambridge: W. Heffer & Sons Ltd., 1956.

Kim, Tae Han, *English Phonemics*, Seoul: Hyung-sul publishing Co., 1973.

Lado, Robert, *Linguistics Across Culture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57.

Pike, Kenneth L., *The Intonation of American English*,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53.

Prator, Clifford H., Jr., *Manual of American English Pronunciation*, 3rd e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1971.

Shen, Yao, *English Phonetic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2.

Sledd, James, *A Short Introduction to English Grammar*, Chicago: Scott Foreman, 1959.

Trager, George L. and Smith, Henry L., Jr., *An Outline of English Structure*, Okla: Norman Battenberg Press, 1951.

Wells, Rulon S., *The Pitch Phonemes of English*, *Language*, Vol. 21, 1945.

Yang, Dong Whee, *English Phonetics*, Seoul: Pan-Korea Book Co., 1967.

Zong, In Sop, *Korean Phonetics*, Seoul: Whimoon publishing Co., 1973.